

녹색도시 익산, 산림정책 성과 우수

함라산 입점 임도 3.48km 구간, 휴양형 테마 임도 추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서 2년 연속 수상



익산시가 전례의 산림 자원을 활용 해 시민들에게 녹색 쉼터를 공급하고 있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함라산 입점 임도'를 산림 휴양형 테마 임도로 지정했다. 산림 기반 시설 우수성과 다양한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앞서 함라산 임도는 2022년 칠목재부터 치유의 숲까지 5.7km 구간을 테마 임도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치유의 숲부터 태봉골까지 3.48km 구간을

추가로 지정받으면서 전체 9.18km 구간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쉼터 설치, 임도 포장 등에 대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명품 임도 조성으로 함라산의 산림복지 기반이 더욱 고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라산 입점 임도는 아름다운 금강 낙조와 자연경관을 통해 산림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임도를 따라 걸으며 △국립 익산 치

유의 숲 △산림문화체험관 △한반도 최북단 녹차밭 △4색 전망대 등 다양한 산림 휴양 시설을 누릴 수 있다. 옹포 곰개나루, 용안 생태습지공원, 공공승마장, 성당 교도소 세트장 등 익산의 대표 관광 자원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 밖에도 익산시는 산림 보호와 산불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하는 '산불 지상진화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대회는 현장 통합지휘 산불 진화 시스템 운영과 현장 대응 지휘체계의 확립,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 활용 능력 향상 등 지상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참가했으며, 익산시는 꾸준하게 쌓아온 산불 진화 역량을 통해 '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장려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정현을 시장은 "산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통해 익산만의 산림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번 테마임도 지정과 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익산 교유의 지속적인 산림 정책을 통해 호남 권역 산림정책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공무원노조, 정년연장 서명 릴레이

공무원·시민 공감 조성 위해 총력 홍보 나서



전국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공노)은 공무원들의 노후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년연장 서명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2남회실에서 박정현 국회의원, 이상식 국회의원, 이재강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년퇴직자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됐고, 이번에는 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기 위하여 릴레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후 공무원 노조가 공약을 위해 더 부담하고 덜 받는 결단을 내린 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그간 합의문에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마련'을 명시하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연금 개혁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2022년에는 1,700여 명, 2023년에는 1,900 여명의 퇴직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여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퇴직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2년 295명, 2023년 321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앞으로 도 정부 예산규모로 볼 때 사업이 획

기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였으며,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국회의원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하는 등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갑갑 무소식인 상황이다.

이번 '정년연장 서명 릴레이'를 진행하는 군공노 박덕하 위원장은 "그동안은 임금이 낮더라도 공무원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낮은 임금, 불안한 노후보장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에 공무원노조에서 직접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자는 5만 입법 청원을 3일 만에 완수하는 등 정년연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공무원 정년연장을 위한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0억원 추정

작년보다 8억 증가... 5년간 추정 누계 130억여원

익산시가 올해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0억 원을 추정했다.

익산시는 정기 조사로 15억 원, 부정 감면 조사로 4억 원, 사례별 조사로 11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추정했으며, 지난 5년간 누적 추정 세액은 약 130억 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추정 세액은 지난해보다 8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탈루·은닉 세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추정 사유는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

입금 이자 등 금융 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주요 사례로 A법인인은 아파트 건설용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대출취급수수료 등 금융비용 2억여 원을 과소신고해 약 100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 B법인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에 최초 사용을 하지 않아 당초 감면액 전 부인 1,300만 원을 추정당했다.

익산시는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선택제'를 운영해 30개 법인 중 27개 법인이 혜택을 봤다. 조사기간 선택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공평과세를 위해 하위로 감면 신청을 하거나 유예 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10만원 이상 기부자 300명 추첨... 답례품 원 플러스 원 (1+1) 제공

익산시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기부 확대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 시는 다음달 24일까지 약 한 달간 '답례품 원 플러스 원(1+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여 방법은 이벤트 기간 고

향사랑이(에)음 또는 NH농협에서 익산시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고 답례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응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300명에게 익산 날씬이교구마 5kg(1만 6,000원 상당)을 추

가 답례품으로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익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2026·2027학년도
맞춤형 대입 특강 개최

군산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군산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2026·2027학년도 대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대학입시 환경 속에서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장문성의 입시팩토리' 채널을 운영하는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성 원장이 강사로 나서 △2025학년도 입시 성향 분석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의 중요성 △재수생 증가로 인한 재학생 입시 유행리 등 입시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고, 2026·2027학년도 대입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강 신청은 온라인 접수(<https://forms.gle/ohw2znNEAocfnUQVn8>)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 063-454-258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청년
서포터즈 수료식 개최

군산시는 지난 22일 군산시간여행축제 청년서포터즈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서포터즈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청년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축제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았다.

이 프로젝트는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 주관 아래, SNS 활동 및 축제 관공분야에 관심이 있는 군산시 청년 또는 군산시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운영해왔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전체 활동의 80% 이상을 참여한 서포터즈 15명 전원에게 활동인증서가 수여되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조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